



진월동 지사협,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광주 남구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2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려운 이웃을 신고하는 방법 등을 전달하기 위해 진월동의 가장 큰 축제인 ‘2024년 진월동민 한마음 축제장’ 홍보부스에서 마련했다.

홍보 부스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으며 주민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진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소외되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진월동 행정복지센터로 알려 줄 것을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시의회, 전국체육대회 광주 선수단 응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광주 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시의회는 명진 교육문화위원장을 비롯, 심장욱·조석호 의원과 김용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전국체전은 오는 17일까지 49개 종목에 17개 시도 3만여 명의 선수단이 기량을 겨루며, 광주 선수단은 49개 종목에 선수 1081명과 임원 343명 등 총 1424명이 참가했다.

명진 교문위원장은 “광주시민을 대표하여 구슬땀을 흘려준 선수·지도자에게 감사하다”며 “오랜 기간 땀 흘려 준비한 만큼 값고담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목표한 대로 좋은 결실을 거두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광주경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여성의 전화, 광주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지난 11일 시청 세미나1실에서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최근 데이트, 혼인, 혈연 등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살인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현행 법과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이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입법의 중요성’을, 홍미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이 ‘친밀한 관계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입법적 고려’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노병하 기자



비오신코리아, 전국체전 배구팀 단체 응원전

비오신코리아(주)전직원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한 배구팀을 위해 응원전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사진)

비오신코리아 임직원 30여명은 지난 11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배구 남자일반부 1회전 경기가 열린 경남 진주실내체육관을 찾았다. 이들은 광주 대표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비오신코리아 배구팀이 경북대표인 영천시체육회를 상대로 승리하길 바라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광주지역 유일한 실업배구팀인 비오신코리아 배구팀은 지난 2020년 9월 창단해 2021년부터 4년 연속 광주대표로 전국체전에 참가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신협중앙회장배 한국실업배구연맹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비오신코리아 배구 선수단은 이번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임직원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선전했지만 세트스코어 0-3으로 졌다. 경남 김해=최동환 기자



전대병원 발전후원회, ‘기부 키오스크’ 설치

전남대학교병원 발전후원회가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병원 내에 ‘사랑의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사진)

1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발전후원회는 지난 7일 1동 1층 진료협력센터 앞과 어린이병원(6동) 1층 원무과 옆에 ‘사랑의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이날 정 신 병원장의 기부 키오스크 첫 기부를 시작으로 윤경철 진료부원장, 김광석 공공부원장, 주성필 기획조정실장, 정숙인 교육수련실장, 한재영 대외협력실장, 기승정 의생명연구원장 등이 함께 했다.

기부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삼성페이를 이용해 최소 1000원부터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전남대병원의 발전에 대한 후원금이나 치료비가 없는 어려운 환자를 위한 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다. 결제 후 영수증의 바코드를 이용해 개인정보 입력 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노병하 기자



광주 북부소방,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광주 북부소방은 지난 11일 북구 오룡동 소재 광주과학기술원에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북부소방대원 등 인원 201명과 장비 30대가 동원된 이번 훈련은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반복 숙달을 통해서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폭발 및 화재발생에 따른 119신고 및 자위소방대 초기 대응 △임시응급의료소 운영 및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매뉴얼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개별별 임무 숙달 △불시상황에 대한 상황분석 및 작전 계획수립 등이다.

송성훈 북부소방서장은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전남도, 감염병 예방 손씻기 캠페인 전개

전남도는 오는 15일 ‘세계 손 씻기의 날’을 앞두고 지난 12일 목포 평화광장에서 광주여자대학교,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손 씻기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손 씻기 캠페인은 손 씻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사진)

특히 최근 다양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에는 유혜영 광주여대 교수와 간호학과 학생들, 전남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함께 참여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올바른 손 씻기 OX 퀴즈 등을 통해 비누와 물을 사용해 손을 제대로 씻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도 받았다.

나만석 전남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손 씻기는 모든 감염병 예방의 첫걸음이다. 특히 호흡기 감염병이나 세균성 감염병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광주여대 학생은 “캠페인에 참여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뜻깊은 경험이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장려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세계 손 씻기의 날’은 2008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 국제적인 날이다. 매년 10월 15일 전 세계에서 손 씻기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올해 캠페인은 ‘손 씻기로 감염병을 예방하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 광산소방, 숙박시설 인명대피훈련 실시

광주 광산소방은 지난 10일 광산구 숙박시설(호텔 하이브인)에서 인명대피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훈련은 화재 시 인명구조를 위한 에어매트 설치와 굴절사다리차 등 배치장소 확인과 인명대피, 구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주요 내용은 △인명구조를 위한 에어매트 전개 △특수차량 배치장소 확인 △숙박시설 피난기구 점검 △관계인 화재대응매뉴얼 점검 등이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지속적인 장비숙달과 인명구조 훈련을 통해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오나미 “뇌 신경 혈관 상처… 얼굴 한쪽 마비”

코미디언 오나미(사진)가 투병 사실을 고백했다.

오나미는 13일 오후 9시15분 방송된 KBS 2TV 육아 예능물 ‘슈퍼맨이 돌아왔다’ (슈돌)에서 최근 뇌신경 혈관 손상으로 안면 마비를 겪었던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달라진 가치관을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과 그의 아들 준범이 오나미, 박민 부부를 만난 가운데 오나미가 준범이의 매력에 쫓 빠져 2세 계획을 말했



다. 오나미는 “투병 이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아 아기가 갖고 싶어졌다”라며 투병 기간 중 든든한 힘이 된 남편 박민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도 드러냈다.

제이슨은 2세를 간절히 원하는 오나미를 위해 “엽산을 챙겨 먹어야 한다”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뉴시스